



### 3월의 기도

1.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소생하는 3월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이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 DCEM에도 선교의 꽃이 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교 활동이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며,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옵소서.

2.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문제로 모든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주님께서 속히 정치적 안정화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경제도 회복되어 국민 모두가 평안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주님의 손길을 간구합니다.

3. 세계 각지로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사역에 주님의 손길을 더하여 주옵소서. 3월의 새싹처럼 새로운 생명과 부흥의 역사가 선교지에 일어나게 하시어, 주님의 사랑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모든 선교사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그들의 헌신이 풍성한 열매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 조용기 목사 특별 메시지

### 믿음의 씨앗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고린도후서 9:10)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믿음의 씨앗을 심는 법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씨앗을 심어야 열매를 거둔다는 법칙입니다. 기적을 체험하려면 하나님께서 만물의 근원이심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전에 먼저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씨앗 중 하나는 십일조입니다. 십일조는 마치 우리가 국가에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세금과 같아서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하나님의 분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10 절에는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사랑의 믿음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건강이 필요하십니까? 교회에 봉사함으로써 먼저 건강의 믿음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께서 믿음의 씨앗을 심을 때에 30배, 60배, 100배로 돌려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겨자씨로 비유하신 데에는 상당한 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곧 겨자씨처럼 땅 속에 심어야 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잘 보이지도 않고 바람에 날아가 버릴 만큼 작은 겨자씨이지만 그 씨를 땅에 심을 때 마침내 그 씨가 싹이 나고 자라서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고 사람이 그 그늘에서 햇빛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심는 믿음의 씨는 우리에게 복의 그늘을 드리워 주고, 평안과 기쁨의 그늘을 드리워 주는 것입니다.

###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순복음동경교회,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태승, 정경자, 최인철, 함석숙 님께서 후원해 주셨으며 별칭 및 익명으로 후원해 주신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예금주 : 디시이엠  
계좌번호 181-22-02127-7 혹은  
256-890020-00804 (하나은행)

###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故 조용기 목사의 선교 사역의 발자취와 새로운 선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 되돌아보는 DCEM 2005년 해외성회

### ‘리브홍콩 2005성회’



중국 복음화의 분수령인 홍콩 땅에 그리스도의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되었던 지난 2005년 6월 개최한 ‘리브홍콩2005성회’를 회고해 보고자 한다.

조용기 목사 초청 ‘리브홍콩2005성회’는 홍콩섬 코즈웨이베이에 위치한 홍콩스타디움에서 성황리 개최되었던 성회다. ‘내일을 위해 함께 일하자(Working Together for Tomorrow)’는 주제로 열린 성회는 이틀에 걸쳐 4만여 명의 사람들이 운집했으며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3천여 명의 사람들이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적이 연출됐다.

홍콩목회자연연합회와 (사)순복음실업인선교연합회 동북아선교회가 주최하고 DCEM이 후원하여 개최된 본 성회는 홍콩,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총 2백여 교회가 연합

하여 개최한 홍콩 최대 성회로 기록됐다. 홍콩성회를 준비한 홍콩목회자연연합회 피터호목사는 “성회가 열리는 이틀 동안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났다”며 “조용기 목사 초청 ‘리브홍콩2005성회’는 홍콩뿐 아니라 대만과 중국본토를 복음화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성회였다”고 밝혔다.

성회 주 강사로 초청되어 말씀을 전한 조용기 목사는 “홍콩은 중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할 수 있는 창구와 같다”며 “홍콩을 통해 13억의 중국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자”고 강조했다.

한편 성회가 열린 첫날, 새벽부터 내리기 시작한 장대비는 성회가 시작될 무렵까지 계속해서 쏟아졌다. 마치 성회 개최를 작정하고

방해라도 하듯 심술궂게 내렸다. 폭우로 인하여 한 때 성회 관계자들과 진행요원 모두가 긴장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지만 성회장소를 깨끗하게 지키던 헌신자들의 기도로 비는 점점 그치지 시작했고 성회 시간 직전 기적같이 비는 멈춤과 동시에 무더운 여름 기운도 함께 사그라들었다.

2005년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된 조용기 목사 초청 ‘리브홍콩2005성회’는 홍콩의 교회와 목회자들을 하나로 묶는 성회로 기록됐다. 홍콩과 대만 등 서로 간의 연합과 일치가 돋보였던 이번 성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것에 매우 고무되었다. 특히 홍콩의 전체 교회수가 약 1천 6백여 인 것을 감안해 볼 때 이번 성회에는 무려 20%에 달하는 교회가 연합하여 스타디움에 운집한 셈이었다.



# 갈릴리 바다의 풍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매 순종하는가 하더라 (눅 8:22-25)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 1. 세상 이야기와 하나님의 말씀

한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숫가에 서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날씨가 좋고 바람도 없고 바다도 잔잔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신속히 배를 준비해서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라탔습니다. 배는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를 향해서 미끄러지듯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항상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날은 제자들끼리 모여서 세상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면서 다가올 메시아 왕국의 꿈에 취하여 서로 이야기꽃을 피우는 가운데 예수님과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세상 사랑이 들어오자 예수님과과의 거리를 두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예수님을 이용해서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귀, 영화, 공명을 누리겠다는 생각이 팍 들어 찻습니다. 천국 관심사에서 세상 관심사로 옮겨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관심사에 빠져서 세상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과 대화하지 않는 못하게 만드는 것은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가 마음을 혼미케 하니까 제자들이 자기들의 세상적인 관심사만 말하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버리고 예수님과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잠들어 버린 이 기회에 제자들이 탄 배를 폭풍우 속에 빠뜨려 버리겠다고 작정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만 잠드시면 마귀는 와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갖 인생사에 폭풍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교회가 갈라지고 가정에 풍파가 치며 사업이 엉망진창이 되고 신앙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 대화하는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언제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야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루를 출발하고 주일에는 먼저 교회 와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종교를 가지고 형식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 부귀, 영화, 공명에 취해서 세상 재미에 잔뜩 빠져 있다가 아니면 세상 걱정, 근심에 빠져 있다가 그만 예수를 잠재워 버리고 풍랑을 당하는 것입니다.

### 2. 말씀의 초월성과 예수님의 영원성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이야기, 세상 관심사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믿고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요,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셨으니 어느 누구도 그를 거역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창수가 일어나도 그 말씀대로 바다 건너로 가게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마귀는 기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시대에 기적 같은 것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절망하고 포기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과거에 기적을 행했을 뿐 아니라 오늘날도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 3. 기도로 예수님을 깨워라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렇게 파도가 치고 배가 공중으로 떴다가 벼락 치듯이 떨어지더라도 예수님께서는 곤히 주무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가련하신 하나님의 휴식입니까? 예수님께서서는 3년 반 동안 지상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날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잠시도 쉴 틈이 없이 늘 바빴습니다. 그래서 폭풍우가 치는 데도 곤히 잠드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던져 인간이 되셔서 인간을 대신하여 수고와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음부까지 내려가셨다가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에서 이룩하신 모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누리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우리의 환경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바람과 파도를 일으킬 때 그대로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주신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로서 예수님을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 4.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믿음을 잃어버린 것은 그들이 세상 이야기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을 때, 주님께서 “우리가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건너가자고 그랬으면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배가 뒤엎어져도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세상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를까? 우리는 떡으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동안에는 430년 동안 떡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왔을 때는 떡으로 살 수 없었습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렸습니다. 광막한 사막에 양식도 없고 물도 없고 병원도 없고 의복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할 때, 그 말씀을 들으매 말씀을 통해서 만나도 오고 메추라기도 오고 물도 생겨나고 병도 낫고 의복도 낱아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 영혼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잘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법사도 잘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개인적인 풍랑, 가정의 풍랑, 자녀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풍랑, 사업과 생활에 다가온 풍랑, 모든 풍랑을 주님께서 잠잠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함으로써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 마태복음9

## 성령에게 이끌린 광야에서의 시험



불 같은 시험과 향기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마4:1)



예수께서는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받으신 후 성령이 이끌려 광야로 가서 사십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처럼 먼저 시험에서 승리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능력과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연단’이고, 다른 하나는 마귀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주는 ‘유혹’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시험을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학교에 진학할 때에도 시험에 합격해야하고, 학생은 정기적으로 학과시험을 치러야 하고, 취업을 할 때에도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시험을 쳐서 실력과 능력을 인정받아야 자격을 얻고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시험을 통과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쓰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꿀을 제단에 올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꿀은 굉장히 달지만 불을 통과하면 구린내가 나기 때문입니다. 소나 양의 기름을 불로 태우면 향기가 나듯 하나님의 제물은 향기로운 제물이어야 합니다.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라 구린내가 나는 꿀을 제단에 올리지 못하도록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불 같은 시험과 환난을 통하면 향기가 납니다. 깨어지고 회개하기 때문에 더 부드러워지고 향기가 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믿는 척하면서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가 될 수는 있어도 불 같은 시험을 당하면 결국 구린내가 납니다. 불평하고 험박하고 교회를 이간질시킵니다. 그것은 가짜입니다. 이처럼 시험을 통과해야 진짜와 가짜를 알 수 있습니다.

불 같은 시험을 만났을 때 더 깨어지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향기가 나면 진짜겠지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한다면 가짜



입니다. ‘예수 믿는데 일이 왜 이 모양이야? 이제부터 하나님 믿지 말아야겠다. 주일날 교회도 가지 않겠다. 십일조 낸 것도 도로 다 찾으러 가야겠다’ 하면서 온갖 불평을 하며 구린내를 낸다면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인데 무엇이 모자라서 시험을 통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본성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통해야만 참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할 수 있듯 예수님은 시험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참 아들이라는 것을 온 천하에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그것은 참 신앙의 증명이며 권리행사를 위한 사전적 승인이며 더욱 큰 복과 성장을 위한 통과례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오거든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이후에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기대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당당하게 통과하여 합격의 승리를 안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산강해는 조용기목사님의 마태복음 강해서 「예수 그리스도의세계」에서 요약 발췌하였습니다.